

프로판-도시가스간 가격균형건의

우리회는 LPG수입사, 판매·집단공급업체와 공동으로 프로판가격이 도시가스보다 저렴하거나 또는 최소한 동일가격이 되도록 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1. 그간 우리 LPG업체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가정취사용 연료를 연탄에서 프로판으로 대체하여 전국민의 가스시대를 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해 왔습니다.

2. 그러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과거 정부의 도시가스보급 확대정책에 따라 LPG산업은 점차 도시가스에 그 자리를 물려주고 사양산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한편 LNG 전국 배관망 구축을 통하여 전국민에게 가스연료를 공급한다는 근본취지에는 공감하나 경제성과 에너지수급 등을 간과한 일방적인 도시가스 보급정책은 에너지안보나 산업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4. 특히 도시가스는 중산층이상의 부유층이 주소비계층인 반면 프로판은 산동네·달동네·도시·벽지 등의 저소득계층이 사용하는 연료로 고착되어 저소득층이 31%이상

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사회현실하에서는 가스보급확산(도시가스 저가공급)보다는 소득정책을 통한 재분배와 복지쪽에 힘을 기울여 주실때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5. 따라서 최근 에너지 가격합리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세체계를 개선하여 저소득층 연료인 프로판이 도시가스보다 저렴하게 또는 최소한 동일가격이 되도록 조정하여 주실 것을 LPG업체 공동명의로 건의드리오니 긍정적으로 검토·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6. 26

LG-Caltex가스(주) 대표이사 구진회
SK가스(주) 대표이사 조재수
한국LPG가스공업협회 회장 고광익
전국LPG판매조합이사장협의회 회장 김창기
한국LPG가스집단공급업체동조합 이사장 임정수

수송용 LPG가격의 적정수준 책정 건의

- 우리회 · 양수입사 -

정부의 수송용 LPG가격의 인상방침과 관련, 최근 우리 회와 LPG수입사는 LPG가격이 휘발유의 50% 이하, 경유 의 70% 이하 수준에서 책정해줄 것을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1. 최근 정부가 에너지 과소비를 방지하고 건전한 가격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에너지 가격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음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경하드립니다.

본 구조개편이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 및 에너지 수급구조 건전화에 대한 기본방향이 뚜렷이 설정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선진 외국에서는 가스차량의 보급이 확산되는 추세로서 각

종 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며 특히, LPG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하여 보급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실정인 바 우리나라도 LPG차량 보급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용역 결과 발표에 의하면 수송용 에너지인 휘발유 : 경유 : LPG의 가격을 100:70~80:55~65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청정연료인 LPG 사용을 억제하고 휘발유, 경유의 소비확대를 유발하게 되므로 환경개선을 위한 기본시책

에 반하는 것입니다.

3. LPG차량 사용규제가 없는 선진 외국의 경우 청정연료인 LPG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LPG가격이 대략 휘발유의 50%미만이나 LPG사용의 불편 및 연비 차이 등으로 인하여 보급확대가 원만히 추진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가격이 48%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불편 등에 따른 불만으로 LPG차량 일부가 휘발유 차량으로 전환되는 등 약간의 감소현상까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LPG차량이 휘발유차량에 비하여 연비가 약 70~80% 수준에 불과하며 충전소가 부족하고 또한 외곽에 위치하다 보니 충전을 위한 불필요한 주행에 따른 연료, 시간, 노력의 낭비가 발생하며 LPG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 등에 기인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차량 구입 전환시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LPG차량의 제반 여건 및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기존 LPG차량 사용자들이 용역결과에 대해 귀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LPG차의 매각 및 휘발유차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또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LPG 등 가스 차량 보급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는 실정에서 금번 연구원의 제시안에 의하면 열량기준 대비 LPG가격이 경유보다 약 20~40% 비싸지게 되는 역전현상이 발생되므로 오히려 경유차량 보급을 권장하는 모순된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LPG의 열량이 경유의 75% 수준에 불과하며 사용불편 및 심리적 불안야기 등 LPG차량 운행에 대한 열악한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감안되어 가격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우리 LPG업계는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LPG차량 사용규제가 없는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LPG가격이 휘발유의 50% 이하 수준이 되도록 하며 아울러 열량 및 사용불편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경유의 70% 이하 수준이 되도록 LPG업계 공동명의로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K가스(주) 대표이사 조재수
LG-Caltex가스(주) 대표이사 구진희
한국LPG가스공업협회 회장 고광익

<첨부 1> 수송용 에너지간 가격비교(개편안 기준)

구분	휘발유	경유	LPG	
○상대가격(1 기준)개편안(A)	100	70~80	55~65	
○유효열량당 상대가격(A÷D)	40	22~25	27~31	
○휘발유대비 지수(%)	100	55~63	68~78	
전체	-발열량(kcal)(B)	8,300	9,200	6,890
	-열효율(%) (C)	30	35	30
	-유효열량(kcal)(D=B×C)	2,490	3,220	2,067

<첨부 2> 서구 주요국의 수송용 에너지간 상대가격 비교

국 가	휘발유	경유	LPG
프랑스	100%	57%	40%
독일		64%	58%
이탈리아		63%	45%
네덜란드		67%	28%
일본		82%	48%
호주		66%	44%
스페인		66%	60%
캐나다		93%	52%
단순평균	100%	70%	47%

* 자료 : LPG차량의 보급 및 규제개선에 관한 연구, 1999. 에너지경제연구원